조선총독부도서관분류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hosun Government-General Library Classification

여지숙(Ji-Suk Yeo)* · 오동근(Dong-Geun Oh)**

<목 차>

1. 서론
2. 조선총독부도서관분류표의 특징 및 분석
2.1 편찬경위 및 특징
2.2 신서부, 고서부, 양서부분류표의 분석
2.3 朝鮮門의 특징
3. 조선총독부도서관분류표와 관련 분류표의 비교분석
3.1 京都大學附屬圖書館分類表와의 비교
3.2 철도도서관분류표과의 비교
3.3 和洋圖書共用十進分類表案과의 비교
4. 결론

초 록

이 연구는 우리나라 최초의 관립도서관이며 국립중앙도서관의 전신인 조선총독부도서관에서 사용한 분류표에 관한 것이다. 조선총독부도서관분류표는 신서부, 고서부, 양서부의 세 개 분류표를 편찬하여 사용하였다. 이에 이 연구는 일제강점기 당시 관립도서관이었던 조선총독부도서관분류표의 특징에 대해 분석하였다. 또한 조선총독부도서관분류표와 관련 있는 분류표를 비교분석하여 그 영향관계를 파악하였다.

주제어 : 조선총독부도서관분류표, 조선총독부도서관, 조선총독부도서관 신서부분류표, 조선총독부도서관 고서부분류표, 조선총독부도서관 양서부분류표

Abstract

This study reviews classification used the Chosun Government-General Library which library was the first of a government library in the Korea. Chosun Government-General Library made and used the Eastern Books Classification, Old Books Classification and Foreign Books Classification. This study investigat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Chosun Government-General Library Classification which library was a government library at the time of Japanese occupation of Korea. This study also compares and analyzes the classification with other major related classification system at that time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of influence among them.

Key Words : library classification, Chosun Government-General Library Classification, Chosun Government-General Library, Chosun Government-General Library Eastern Books Classification, Chosun Government-General Library Old Books Classification, Chosun Government-General Library Foreign Books Classification

* 계명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강사(wuhaha@chol.com)
** 계명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odroot@kmu.ac.kr)
· 접수일 : 2004. 9. 1 · 최초심사일 : 2004. 9. 4 · 최종심사일 : 2004. 9. 12

1. 서 론

조선총독부도서관은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대표 도서관인 국립중앙도서관의 전신(前身)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관립(官立)도서관이었다. 조선총독부도서관은 단순한 관립이 아닌 조선의 도서관을 대표하는 정책중심 도서관으로서 도서관정책을 주도하는 기관이었다.[1] 해방 이후 조선총독부도서관은 국립도서관으로 다시 개관하였으며, 이후 국립중앙도서관으로 개칭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으로 보아 조선총독부도서관은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 대표 도서관인 국립중앙도서관이 가진 역사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조선총독부도서관의 역사는 국립중앙도서관의 역사와 관련해 이미 체계적으로 정리된바 있다.[2] 그러나 당시 조선총독부도서관에서 사용하던 분류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부분들이 남아 있다. 조선총독부도서관이 일제강점기 당시 사용하던 분류표의 제정자와 제정연도 및 편찬 경위 등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다. 아울러 조선총독부도서관이 사용한 분류표에 관한 상세한 분석 또한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조선총독부도서관분류표에 대해 좀 더 상세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총독부도서관이 사용한 분류표를 분석하여 그 특징과 이 분류표와의 영향관계에 있는 분류표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제한점으로 남는 것은 조선총독부도서관분류표에 편찬 연도와 경위 그리고 참조한 분류표나 이론에 대해 언급한 부분이 없는 관계로 이에 대한 사실을 정확하게 밝혀낼 수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조선총독부도서관분류표와 비교분석 된 분류표도 이러한 연유로 동시대에 사용되던 분류표이거나 유사한 성격의 도서관에서 사용한 분류표 중에서 선정하였다.

2. 조선총독부도서관분류표의 특징 및 분석

2.1 편찬 경위 및 특징

조선총독부도서관은 자관에서 사용할 분류표를 작성하여 사용하였으나, 작성 연도와 작성자에 대해서는 기록이 전해지지 않아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1924년 4월에 조선총독부도서관의 사

1) 김남석, 일제하 공공도서관의 사회교육활동(대구 : 계명대출판부, 1991), p.109.
2) 이와 관련해서는 국립중앙도서관 편, 국립중앙도서관사(서울 : 국립중앙도서관, 1973) 참조.

서로 부임한 島崎末平가 주축이 되어 편찬한 것으로 추측된다. 1938년 島崎末平의 사망을 추도하는 추도사에는 도서관장의 명을 받아 島崎末平가 중심이 되어 전국의 도서관에 있는 분류표를 수집하여 이를 검토해서 총독부도서관분류표를 만든 것에 대한 내용[3]이 있다.

이 추도사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조선총독부도서관분류표는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작성된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분류표 작성에 참여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그 분류표를 편찬함에 있어 당시 기존 도서관에서 사용하던 여러 분류표를 두루 참조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당시 분류표 편찬에 참여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으므로 알 수 없으며, 분류표의 정확한 편찬 연도 역시 알 수 없다. 그러나 여러 정황으로 미루어 보아 1924년에 편찬되었을 것으로 추측[4]하고 있다.

또한 조선총독부도서관의 역사에서 살펴보면, "大正12年(1923) 경성헌병대청사의 일부를 사용해 가사무소(假事務所)를 설치하여 개관 준비에 착수하였는데, 먼저 신서부 일만이천책의 분류정리를 완료하여 大正14年(1925)에 일반에 공개하였다"[5]는 내용이 있다. 이로 미루어 보아 개관전에 이미 신서부에 한해서만큼은 분류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신서부분류표에 한해서 개관 전에 편찬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조선총독부도서관은 신서(新書)와 고서(古書), 양서(洋書)를 위한 분류표를 각기 따로 만들어 사용하였다. 이 세 개의 분류표는 모두 십진식 분류표이지만, 이 세 분류표 모두 열한 번째 주류로 조선문(朝鮮門)을 두고 있다. 그러나 주류 이하의 모든 강목들은 십진식으로 전개하였다. 각 분류표는 동일한 주류를 가지고 1000구분까지 전개되어 있다. 이 세 분류표는 동일한 주류를 가지고 있다.

분류기호는 아라비아숫자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분류기호로 아라비아숫자만을 사용한 것은 아니다. 즉 1門 아래의 강목들은 주류의 번호인 1을 가장 먼저 앞세우고 다음으로 부호(dash: -)가 오며 그 다음에 두 자리의 강목의 번호가 온다. 1門에서 가장 먼저 오는 강목은 1-00이다. 또한 조선문의 경우 주류의 기호를 조선을 의미하는 朝로 하였으며, 고서의 경우에는 신서부분류표와 동일한 분류기호를 사용하였으나 분류기호의 가장 앞부분에 고서를 표시하는 古를 앞세웠다. 따라서 신서부분류표에서 조선문의 경우 朝-00이며, 고서부분류표에서 가장 먼저 오는 분류항목은 古1-00의 기호가 된다. 그리고 고서부분류표의 경우에는 가타가나(カタカナ)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본다면 조선총독부도서관분류표는 순수기호(pure notation)가 아니라 부호와 한자, 알파벳, 가나문자 그리고 아라비아숫자를 혼용해서 사용한 혼합기호(mixed notation)를 사용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조선총독부도서관분류표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3) 박희영, "국립중앙도서관사," 도서관, 제26권, 제2호(1971.2), p200.
4) *Ibid*, p.34.
5) "朝鮮總督府圖書館略史," 文獻報國, 第1卷, 第1號(1935.10)

① 신서부, 고서부, 양서부 분류표를 각기 별도로 마련하여 사용하였다.
② 십진분류법을 채택하였다.
③ 십진식이지만, 열한 번째 주류로 조선문을 두어 조선과 더불어 밀접하게 관련된 만주, 몽고, 시베리아지역의 도서를 포함시켰다.[6]
④ 주류의 각 문(門)은 두 개로 크게 대별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전체 도서는 스무 개의 대분류를 기초로 한다.[7]
⑤ 편찬자와 편찬 연도 및 주제 배열의 이론이 명기(明記)되어 있지 않다.
⑥ 보조표를 사용하지 않았고, 색인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⑦ 분류기호는 혼합기호를 사용하였다.

조선총독부도서관분류표는 1945년까지만 사용되었으며, 해방 이후 국립도서관으로 계승되면서 더 이상 사용되지 않았다.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은 국내서를 비롯한 동양서와 비도서자료, 연속간행물에 대해서는 한국십진분류법(KDC) 제4판을 사용하고 있으며, 서양서는 듀이십진분류법(DDC)를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고서의 경우에는 박봉석의 조선십진분류법(KDCP)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사용한 분류표의 변경 사항을 정리하면 <표 1>[8]과 같다.

<표 1> 국립중앙도서관의 시대별 분류표 변경사항

종 류	시 대	분 류 표
동양서	1945년 이전	신서부분류표
	1945-1983년	한국십진분류표(KDCP)
	1984년 이후	한국십진분류법(KDC)
서양서	1945년 이전	양서부분류표
	1946년 이후	Dewey Decimal Classification(DDC)
고 서	1945년 이전	고서부분류표
	1946년 이후	한국십진분류표(KDCP)

이와 같이 조선총독부도서관분류표는 아마도 조선총독부도서관이 개관 당시에 작성되어 일제강점기에만 사용되었으나, 해방과 더불어 더 이상 사용되지 않았다. 이는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 위주로 작성된 분류표를 해방 이후에도 사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조선총독부도서관 이외에 이 분류표가 사용된 기록은 아직 없다.

6) 조선총독부도서관, 신서부분류목록 : 상권(경성 : 동도서관, 昭和12年[1937]), p.1.
7) *Ibid*, p.4.
8)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 <http://www.nl.go.kr> [인용 2004. 5. 20.]

2.2 신서부, 고서부, 양서부분류표의 분석

조선총독부도서관은 분류표를 세 개, 즉 신서부와 고서부, 양서부로 나누어 사용하였는데, 각각의 편찬 연도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그 인쇄 연도는 명확히 명시되어 있다. 신서부분류표(新書部分類表)는 1929년(昭和4年) 3월에 인쇄되었으며, 고서부(古書部) 및 양서부분류표(洋書部分類表)는 1931년(昭和6年) 7월에 인쇄되었다. 이 절에서는 조선총독부도서관에서 사용한 이 세 분류표에 대해서 살펴본다.

신서부분류표는 신서만을 분류하기 위한 분류표이다. 여기에서 신서는 신간도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이 화한문(和漢文)으로 된 도서로 외형이 양장이며 서가에 세워서 보관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고서부분류표는 고서만을 분류하기 위한 분류표로, 고서는 고본(古本)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철사본(綴絲本)의 장정을 갖춘 것으로 서가 상에 가로로 보관하는 도서를 말한다. 또한 양서부분류표는 양서만을 분류하기 위한 분류표로, 양서는 내용이 주로 구문(歐文)으로 된 도서를 말한다.[9]

신서에 해당하는 도서는 조선총독부도서관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였으며, 이에 따라 고서부나 양서부분류표에 비해 가장 많은 분류항목이 전개되어 있다. 1945년 이전 조선총독부도서관의 장서통계[10]와 신서부, 고서부, 양서부의 분류항목수를 주류별로 비교하면 <표 2>와 같다.

<표 2> 1945년 이전 조선총독부도서관 장서수와 분류항목의 비교

자료별 \ 門 別		第一門	第二門	第三門	第四門	第五門	第六門	第七門	第八門	第九門	第十門	朝鮮門	계
신서	장서수	10,821	12,251	8,676	11,745	25,504	14,503	9,737	8,553	15,256	9,617	11,768	126,663
		(7.8%)	(8.9%)	(6.3%)	(8.5%)	(18.45)	(10.5%)	(7.0%)	(6.2%)	(11.0%)	(6.9%)	(8.5%)	(100%)
	분류항목수	63	70	64	59	68	77	79	63	78	12	100	633
		(8.6%)	(9.5%)	(8.7%)	(8.0%)	(9.3%)	(10.5%)	(10.8%)	(8.6%)	(10.6%)	(1.6%)	(13.6%)	(100%)
고서	장서수	12,893	824	2,600	379	14,914	18,712	4,075	1,521	8,609	14,816	49,980	79,343
		(10.0%)	(0.6%)	(2.0%)	(0.3%)	(11.5%)	(14.4%)	(3.2%)	(1.2%)	(6.7%)	(11.5%)	(38.6%)	(100%)
	분류항목수	38	15	22	9	46	53	16	13	31	7	88	250
		(11.3%)	(4.4%)	(6.5%)	(2.7%)	(13.6%)	(15.7%)	(4.7%)	(3.8%)	(9.2%)	(2.1%)	(26.0%)	(100%)
양서	장서수	1,436	791	1,840	1,066	1,723	2,166	1,978	1,196	915	3,408	544	16,519
		(8.4%)	(4.6%)	(10.8%)	(6.2%)	(10.1%)	(12.7%)	(11.6%)	(7.0%)	(5.4%)	(20.0%)	(3.2%)	(100%)
	분류항목수	12	12	19	17	25	33	26	10	17	12	20	183
		(5.9%)	(5.9%)	(9.3%)	(8.4%)	(12.3%)	(16.3%)	(12.8%)	(4.9%)	(8.4%)	(5.9%)	(9.9%)	(100%)

1945년 이전의 장서통계를 보면 신서부는 전체 장서의 49%를 차지하며 고서부는 45%, 양서부는 6%를 차지하고 있어, 신서부가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고서부와 양서부임을 알 수 있다. 이런

9) 조선총독부도서관, *op. cit.* p.4.
10) 서울시사편찬위원회, 서울육백년사(서울 : 1981), p.826.

장서통계에서 나타나는 것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분류항목수에도 반영되어 나타난다. 분류항목수에서도 신서부는 전체 분류항목의 57%를 차지하며 고서부는 27%, 양서부는 16%를 차지하고 있어, 신서부가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고서부와 양서부 순이다. 또한 문별 장서량에서도 대체로 장서량이 많은 문이 분류항목수도 많음을 알 수 있다.

이 세 분류표의 분류항목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동일한 주류를 가지고 있다. 먼저 이 세 분류표의 주류를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표 3> 조선총독부도서관 신서부, 고서부, 양서부분류표의 주류

新書部分類表		古書部分類表	洋書部分類表	
哲學 宗敎	第一門	哲學 宗敎	1	Philosophy Religion
敎育 社會	第二門	敎育 社會	2	Education Society
法律 政治	第三門	法律 政治	3	Law Politics
經濟 統計	第四門	經濟 統計	4	Economics Statistics
語學 文學	第五門	語學 文學	5	Languages Literature
歷史 地理	第六門	歷史 地理	6	History Geography
理學 醫學	第七門	理學 醫學	7	Science Medicine
工學 軍事	第八門	工學 軍事	8	Engineering Army
産業 藝術	第九門	産業 藝術	9	Industries Arts
全書 雜纂	第十門	全書 雜纂	10	General works Miscellany
朝鮮 附 滿洲蒙古西伯理亞	朝鮮門	朝鮮 附 滿洲蒙古西伯理亞	K	Korea(added Manchuria, Mongolia and Siberia)

<표 3>에서 나타난 것처럼 이 세 분류표의 주류는 동일하다. 주류에서 조선총독부도서관분류표는 주류 배열의 순서를 인문 및 정신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및 공학의 순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10개 문 가운데 마지막 문에 총류를 두고 있다. 아울러 주류 구분표에 있어 인문과학분야 및 사회과학분야에 6개, 자연과학 및 공학분야에 2개, 예술분야에 1개의 주류를 배정하고 있어 분야간 큰 차이를 보여 주고 있다. 가장 특이한 것은 주류의 마지막에 조선문(朝鮮門)을 따로 두어 조선 및 만주, 몽고, 시베리아와 관련된 자료를 한데 모을 수 있도록 한 점이다. 이 조선문의 강목전개는 주류와 조기성을 갖도록 동일하게 전개하였다. 이 세 분류표는 주류에서 동일하지만 그 이하 항목의 전개에서는 각기 다르게 전개하였다.

2.3 朝鮮門의 특징

조선문은 조선총독부도서관분류표에서 열한 번째 문으로, 십진식을 벗어난 류라고 할 수 있다. 조선문을 특별히 따로 둔 것은 조선총독부도서관분류표가 갖는 특징적인 것으로, 당시 일본의 식

민지통치정책과 연결 시켜 생각해 볼 수 있다. <표 2>에서 나타난 것처럼, 조선총독부도서관의 문별 장서수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은 고서의 조선문이다.

일본은 조선에 대한 이해와 연구가 필요했기 때문에 조선의 고서를 집중적으로 수집하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조선문에는 만주, 몽고, 시베리아도 함께 포함시키고 있어, 그 목적이 당시 조선을 비롯한 대륙 침략에 필요한 연구 자료를 한 자리에 모아 이용에 편이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11]

이 조선문은 주류와 조기성을 갖도록 전개한 것이 또 다른 특징이다. 주류와 조선문의 조기성을 나타내면 <표 4>와 같다.

<표 4> 주류와 신서부, 양서부, 고서부분류표의 조선문에서 조기성 비교

主類		朝鮮門(新書部)		朝鮮門(古書部)		Korea(洋書部)	
第一門	哲學 宗教	朝-00	哲學 總記	古朝-00	哲學 經學 總記	K-00	Philosophy Religion
第二門	教育 社會	朝-10	教育 總記	古朝-10	諸子	K-10	Education Society
第三門	法律 政治	朝-20	法律 總記	古朝-20	宗教 總記	K-20	Law Politics
第四門	經濟 統計	朝-30	經濟 總記	古朝-30	政治 法律 總記	K-30	Economics Statistics
第五門	語學 文學	朝-40	語學 總記	古朝-40	語學 總記	K-40	Languages Literature
第六門	歷史 地理	朝-50	歷史 總記	古朝-50	歷史 總記	K-50	History Geography
第七門	理學 醫學	朝-60	地理 總記	古朝-60	地理 風俗 總記	K-60	Science Medicine
第八門	工學 軍事	朝-70	理學 總記	古朝-70	土木 水利	K-70	Engineering Army
第九門	産業 藝術	朝-80	産業 總記	古朝-80	農家 總記	K-80	Industries Arts
第十門	全書 雜纂	朝-90	全書 事彙	古朝-90	全書 叢書	K-90	General works Miscellany

<표 4>에서 나타난 것처럼 신서부의 조선문과 양서부의 Korea의 경우 주류와 동일하게 전개하였으나, 고서부의 경우 고서의 특성을 반영하여 주류와는 약간 상이하게 전개하였다. 古朝-10 諸子가 그러하다. 그리고 古朝-70 土木 水利와 古朝-80 農家는 일본이 조선에서 각별히 중점을 둔 분야였던 것으로 보인다.

3. 조선총독부도서관분류표와 관련 분류표의 비교분석

3.1 京都大學附屬圖書館分類表와의 비교

島崎未平이 당시 旣設圖書館의 분류표를 두루 수집하여 참고하였으며, 분류표 작성을 명한 관

11) *Ibid,* pp.826-827.

장 荻山秀雄이 京都大學출신이므로, 조선총독부도서관분류표를 작성할 당시 주로 참조한 분류표가 『京都大學附屬圖書館分類表』일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12]

京都大學附屬圖書館은 1899년 도서관 창설 당시부터 사용한 분류표가 있었으나, DDC의 우수성을 받아들여 1902년(明治35년) 십진식 분류표를 새로이 작성하여 사용하였다.[13] 京都大學附屬圖書館分類表는 和漢書分類表와 洋書分類表를 편찬하여 사용하였다. 먼저 京都大學附屬圖書館의 두 분류표의 주류를 제시하면 <표 5>와 같다.

<표 5> 京都大學附屬圖書館 和漢書分類表와 洋書分類表의 주류

和漢書分類表		洋書分類表	
第一門	宗教 哲學 教育	I	Philosophy
第二門	法律 政治	II	Social sciences
第三門	經濟 社會	III	Philology
第四門	文學 語學	IV	Literature
第五門	歷史 地理	V	History
第六門	自然科學	VI	European history
第七門	醫學	VII	Sciences
第八門	工學 藝術	VIII	Arts & Industries
第九門	産業	IX	Geography & Travels
第十門	全書 叢書	X	Encyclopaedia & Periodical

和漢書에 비해 洋書分類表가 훨씬 더 인문사회과학분야에 치중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조선총독부도서관은 신서부, 고서부, 양서부의 주류가 모두 동일함에 비하여, 京都大學附屬圖書館의 和漢書分類表와 洋書分類表는 주류에서부터 다르다. 따라서 조선총독부도서관분류표는 주류에서 유사한 점이 많은 京都大學附屬圖書館의 和漢書分類表를 참조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이 두 분류표를 비교분석해 봄으로써 조선총독부도서관분류표에 영향을 준 분류표에 대해서 파악해 본다. 먼저 이 두 도서관의 분류표의 주류를 비교하면 <표 6>과 같다.

12) 원종린, 박봉석의 도서관사상 연구 : 그의 업적에 나타난 인간상을 중심으로(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도서관학과, 1980), p.34.

13) 京都大學附屬圖書館 編, 京都大學附屬圖書館六十年史(京都 : 昭和26年[1961]), p.135.

<표 6> 京都大學附屬圖書館和漢書分類表와 조선총독부도서관신서부분류표의 주류 비교

京都大學附屬圖書館和漢書分類表	분류기호	朝鮮總督府圖書館新書部分類表
宗教 哲學 教育	第一門	哲學 宗教
法律 政治	第二門	教育 社會
經濟 社會	第三門	**法律 政治**
文學 語學	第四門	經濟 統計
歷史 地理	第五門	**語學 文學**
自然科學	第六門	**歷史 地理**
醫學	第七門	理學 醫學
工學 藝術	第八門	工學 軍事
産業	第九門	産業 藝術
全書 叢書	第十門	**全書 雜纂**
	朝鮮門	朝鮮 附 滿洲蒙古西伯理亞

<표 6>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京都大學附屬圖書館和漢書分類表와 조선총독부도서관신서부분류표는 분류기호의 형식이 동일하며, 또한 법률·정치, 문학·어학, 역사·지리, 전서·총서의 네 개의 주류가 동일함을 알 수 있다. 동일하지는 않더라도 유사하게 전개된 류로 철학· 종교류가 있다. 이 두 분류표의 관계를 좀 더 상세히 살펴보기 위해 동일하거나 부분적으로 동일한 주류를 중심으로 강목단계를 비교해 본다.

3.1.1 법률, 정치

京都大學附屬圖書館和漢書分類表에서 法律 政治는 두 번째 문(門)이며, 조선총독부도서관분류표에서는 세 번째 문이다. 두 분류표 모두 하나의 문을 법률과 정치로 나누어 사용한 것은 동일하나, 전개 정도는 서로 다르다. 이 두 분류표의 법률, 정치 관련 항목을 비교하면 <표 7>과 같다.

<표 7> 京都大學附屬圖書館和漢書分類表와
조선총독부도서관신서부분류표의 법률, 정치의 비교

京都大學附屬圖書館和漢分書類表		朝鮮總督府圖書館新書部分類表	
2-00	法律總記	3-00	法律 總記
		3-10	刑法
2-20	國法學	3-20	民法
2-30	議院總記	3-30	商法
2-40	政治學	3-40	裁判所構成法
		3-50	國際公法
		3-60	政治 總記
		3-70	議院 議會史
		3-80	行政
		3-90	外交

京都大學附屬圖書館和漢書分類表는 네 개의 강만을 사용하였으며, 이 중에서 법률에 두개, 정치에 두개의 강을 배정하였다. 조선총독부도서관신서부분류표의 경우 열개의 강 모두를 사용하였으며, 이 중 법률에 여섯 개, 정치에 네 개의 강을 배정하였다. 京都大學附屬圖書館和漢書分類表는 법률을 크게 법률총기와 국법학으로 나눈 반면, 조선총독부도서관신서부분류표의 경우 법률총기와 형법, 민법, 상법, 재판소구성법, 국제공법으로 나누어 전개하였다. 정치는 京都大學附屬圖書館和漢書分類表는 의원총기와 정치학으로 대별하여 전개하였고, 조선총독부도서관의 경우 정치총기, 의원 및 의회사, 행정, 외교로 나누어 전개하였다. 이처럼 京都大學附屬圖書館和漢書分類表의 경우 목의 단계에 전개하였던 것을 조선총독부도서관신서부분류표의 경우 이를 강단계에 전개하여 좀 더 비중을 크게 두었음을 알 수 있다.

3.1.2 어학, 문학

京都大學附屬圖書館和漢書分類表에서 어학, 문학은 네 번째 주류로 전개되었으며, 조선총독부도서관신서부분류표의 경우 다섯 번째 주류로 각각 전개하였다. 이 두 분류표의 어학, 문학 관련 항목을 비교하면 <표 8>과 같다.

<표 8> 京都大學附屬圖書館分類表와 조선총독부도서관신서부분류표의 어학. 문학의 비교

京都大學附屬圖書館和漢分書類表		朝鮮總督府圖書館新書部分類表	
4-00	文學總記	5-00	語學 總記
4-10	修辭學 雄辯法	5-10	國語
4-20	國文學總記	5-20	東洋諸國語
4-30	物語 草紙 日記	5-30	文學 總記
4-40	中世近代小說	5-40	國文學
4-50	外國文學史	5-50	室町時代小說
4-60	言語學總記	5-60	韻文學
		5-70	支邦文學
4-80	英語	5-80	外國文學
		5-90	少年圖書 童謠 童畵 少年理科書

京都大學附屬圖書館和漢書分書類表는 4문에서 문학을 선치시키고 어학을 후치시킨 반면, 조선총독부도서관신서부분류표는 어학을 선치시키고 문학을 후치시켰다. 이 순서는 강단계의 전개에서도 그대로 연결되어, 京都大學附屬圖書館和漢書分書類表는 먼저 문학에 여섯 개의 강을, 어학에 두개의 강을 배정하였다. 반면 조선총독부도서관신서부분류표는 어학에 세 개, 문학에 일곱 개의 강을 배정하였다. 두 분류표 모두 어학보다는 문학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京都大學附屬圖書館和漢書分書類表에서 어학은 어학총기와 영어로 크게 대별된다. 국어학은 4-69에 영어를 비롯한 다른 언어에 대해서는 4-80의 강목을 사용하였다. 이에 반해 조선총독부도서관신서부분류표의 경우 어학은 어학총기와 국어, 동양제국어로 나누어 전개하였고, 각국의 언어에 대해서는 5-20의 강목을 동양제국어, 서양제국어, 기타제국어에 배정하였다.

문학의 경우 두 분류표 모두 다섯 개의 강에 문학총기, 국문학, 형식별 문학, 외국문학 등을 배정하고 있는 점이 비슷하다. 그러나 조선총독부도서관신서부분류표의 경우 마지막에 소년도서관련항목을 배정한 점이 특징적이다. 이렇게 어학과 문학을 비교해 보면, 조선총독부도서관신서부분류표가 좀 더 상세하고 체계적으로 전개한 것으로 보인다.

3.1.3 역사, 지리

京都大學附屬圖書館和漢書分類表에서 지리, 역사는 다섯 번째 주류로 전개되었으며, 조선총독부도서관신서부분류표의 경우 여섯 번째 주류로 전개하였다. 이 두 분류표의 역사, 지리 관련 항목을 비교하면 <표 9>와 같다.

<표 9> 京都大學附屬圖書館和漢書分類表와
조선총독부도서관신서부분류표의 역사, 지리의 비교

京都大學附屬圖書館和漢書分書類表		朝鮮總督府圖書館新書部分類表	
5-00	歷史地理總記	6-00	歷史 總記
5-10	安土桃山時代	6-10	
維	維新史料	6-20	國史 總記 史論
		6-30	風俗史
5-40	東洋史總記 各國史	6-40	東洋史
		6-50	西洋史
5-60	傳記叢傳	6-60	皇室
		6-70	地理 總記
5-80	地理總記	6-80	本邦地理
京	京都鄕土資料	6-90	亞細亞地理

京都大學附屬圖書館和漢書分類表는 여섯 개의 강만을 사용하여 역사와 지리를 전개하였으며, 維新史料와 京都鄕土資料에 대해서는 분류기호가 아닌 문자를 사용하였다. 즉 <표 9>에서 보는 것처럼 維新史料는 維를, 京都鄕土資料는 京을 사용하였다. 반면 조선총독부도서관신서부분류표는 6-10을 제외한 아홉 개의 강을 사용하였으며, 이 중 역사는 여섯 개, 지리는 세 개의 항목에 배정하였다.

京都大學附屬圖書館和漢書分類表에서 역사는 크게 역사총기와 시대별 일본역사, 동양사와 전기로 대별된다. 5-00은 역사지리총기라 되어 있으나 목을 보면 역사총기만 전개되어 있다. 그리고 전기를 별도의 강으로 배정한 것이 전기를 조선총독부도서관신서부분류표 보다 더 비중 있게 다룬 것으로 보인다. 조선총독부도서관신서부분류표에서 역사는 크게 역사총기, 일본국사, 풍속사, 동양사, 서양사, 황실로 전개된다. 京都大學附屬圖書館和漢書分類表에는 없는 서양사 항목이 있다는 점과 황실을 위한 별도의 강을 마련한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일본국사는 京都大學附屬圖書館和漢書分類表와 유사하게 시대별로 구분하여 전개하고 있다.

京都大學附屬圖書館和漢書分類表는 지리를 하나의 강에 배정하였으며, 그 목은 동양지리, 일본지리, 중국지리, 외국지리로 대별하여 전개하고 있다. 지리에는 기행도 포함되어 있다. 조선총독부도서관신서부분류표는 지리를 세 개의 강에 배정하였으며, 크게 인문지리학과 지도를 포함하는 지리총기, 일본을 각 지역별로 나눈 本邦地理, 아세아지역과 호주 및 아메리카, 미국, 아프리카지리와 여행안내서 등으로 전개하였다. 京都大學附屬圖書館和漢書分類表에는 하나의 목에 전개되었던 외국지리가 조선총독부도서관신서부분류표에서는 네 개의 목에 배정되어 좀 더 상세하게 전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역사, 지리에서도 京都大學附屬圖書館和漢書分類表보다는 조선총독부도서관신서부분류표가 더 상세하게 전개하였음을 알 수 있다.

3.1.4 全書, 雜纂

京都大學附屬圖書館和漢書分類表와 조선총독부도서관신서부분류표 모두 전서, 잡찬은 열 번째로 전개하였다. 이 두 분류표의 전서, 잡찬 관련 항목을 비교하면 <표 10>과 같다.

<표 10> 京都大學附屬圖書館和漢書分類表와
조선총독부도서관신서부분류표의 전서, 잡찬의 비교

京都大學附屬圖書館和漢書分書類表		朝鮮總督府圖書館新書部分類表	
10-00	百科全書	10-00	全書 叢書
10-01	叢書 (일본)	10-01	全集
10-02	同 (중국)	10-02	事彙 類書
10-03	類書 拔萃(일본)	10-03	隨筆 雜錄
10-04	同 (중국)	10-10	書目
10-05	隨筆 (일본)	10-11	書誌 解題
10-06	同 (중국)	10-20	官報
10-07	雜誌 (일본)	10-21	新聞
10-08	同 (중국)	10-22	雜誌
10-09	新聞	10-23	年鑑
10-10	學術總合刊行物	10-30	學會 俱樂部
		10-35	展覽會

京都大學附屬圖書館和漢書分類表에서 第十門은 全書, 叢書이며, 조선총독부도서관신서부분류표의 경우 全書, 雜纂이다. <표 10>은 두 분류표의 第十門에 전개된 모든 강목들이다. 분류항목에 사용된 용어는 다르지만 <표 10>에서 나타난 것처럼 京都大學附屬圖書館和漢書分類表의 第十門에 전개된 분류항목이 모두 조선총독부도서관신서부분류표에 전개되어 있다. 단지 京都大學附屬圖書館和漢書分類表는 일본과 중국으로 나누어 전개한 것이 차이가 있다. 전체적으로 第十門도 역시 조선총독부도서관신서부분류표가 더 상세히 전개했음을 알 수 있다.

3.1.5 철학, 종교

철학, 종교의 경우 주류에서 분류항목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부분적으로 동일한 항목이다. <표 6>에 나타난 것처럼 철학, 종교는 두 분류표에서 모두 첫 번째 류이다. 그러나 京都大學附屬圖書館和漢書分類表에서는 교육과 함께 第一門에 전개하였으며, 강목의 전개도 다르다. 이 두 분류표의 철학, 종교관련 항목을 비교하면 <표 11>과 같다.

<표 11> 京都大學附屬圖書館和漢書分類表와
조선총독부도서관신서부분류표의 철학, 종교의 비교

京都大學附屬圖書館和漢書分書類表		朝鮮總督府圖書館新書部分類表	
1-00	宗教哲學教育總記	1-00	哲學 總記
		1-10	心理學
1-20	佛教總記	1-20	倫理學
		1-30	
1-40	哲學總記	1-40	東洋哲學
1-50	教育總記 教育學	1-50	宗教 總記
1-60	中國哲學總記	1-60	神道
		1-70	佛教
1-80	日本思想總記	1-80	キリスト教
		1-90	道教

<표 11>에서 나타난 것처럼, 京都大學附屬圖書館和漢書分類表는 종교에 두 개, 철학에 세 개, 교육에 한 개의 강을 배정하였다. 이 분류표에서는 교육을 철학의 분류항목 사이에 설정하고 있어 철학관련 항목들을 분리하고 있다. 종교는 크게 종교총기와 개개 종교별로 전개하였다. 두개의 강은 각각 여덟 개와 아홉 개의 목으로 전개하였는데, 이 중 특히 불교에 대해 佛教總記, 同史 傳記, 寺院 綠記, 佛教 經律, 同 論, 禪宗 語錄, 佛教各宗宗學의 일곱 개의 목을 배정하였다. 이 외에도 일본전통종교인 신도와 그리스도교에 대해서는 總記, 歷史, 各論의 세 개, 인도제종교와 회교에 대해서는 한 개의 목을 배정하였다. 京都大學附屬圖書館和漢書分類表의 종교는 동양종교에 특히 비중을 많이 둔 것으로 보이며, 그 중에서도 특히 불교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철학에 대해 京都大學附屬圖書館和漢書分類表는 세 개의 강을 배정하였는데, 철학총기와 중국철학총기, 일본사상총기로 나누어 전개하였다. 철학총기의 목에는 철학이론과 논리, 심리, 윤리, 미학 동양철학 등이 있으며, 중국철학과 일본사상을 독립된 하나의 강에 배정하여 특히 비중을 많이 두었다.

조선총독부도서관신서부분류표의 경우 第一門은 철학을 전개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철학에 네 개, 종교에 다섯 개의 강을 배정하였고, 하나의 강은 공기호(gap notation)로 남겨놓았다. 철학은 크게 철학총기와 심리학, 윤리학, 동양철학으로 대별하였다. 종교는 종교총기, 신도, 불교, 그리스도교, 도교에 각각 하나의 강을 배정하였다.

종교에서 京都大學附屬圖書館和漢書分類表가 불교에 특히 비중을 많이 둔 것에 비해 조선총독부도서관신서부분류표는 각 종교에 대해 각각 한 개의 강을 배정함으로써 대체로 균등하게 전개하였다. 철학에서 京都大學附屬圖書館和漢書分類表는 일본 및 중국철학에 대해 비중을 크게 둔

반면 조선총독부도서관신서부분류표는 철학 과 심리학, 윤리에 각각 하나의 강을 배정하여 균등하게 비중을 두었다. 그러나 조선총독부도서관신서부분류표의 경우 서양철학에 대해서는 별도의 항목을 배정하지 않아, 서양철학에 대해서는 크게 중점을 두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1.6 기타

다음은 하나의 주류에 있는 모든 강이 동일하지는 않지만 일부 동일한 주제에 대해 두 분류표를 비교해 본다.

먼저 교육에 대해 京都大學附屬圖書館和漢書分類表는 앞서 언급한 철학, 종교와 함께 第一門에 있는 하나의 강에 배정되어 있다. 조선총독부도서관신서부분류표의 경우 사회와 함께 第二門에 있는 네 개의 강에 배정되어 있다. 京都大學附屬圖書館和漢書分類表에서 교육은 교육총기, 역사, 학제(學制), 실업·보통·고등·특수·사범·사회 교육 등으로 전개하였다. 조선총독부도서관신서부분류표는 교육을 크게 교육총기, 학교안내, 체육, 사회교육으로 대별하였다. 교육총기에 교육사 및 교육제도, 학교 및 관리법, 교수·훈련이 있으며, 학교안내에 초등, 고등, 실업 및 전문, 사범, 특수교육 등이 있다. 특이하게 체육을 하나의 강에 배정하였으며, 사회교육에는 도서관, 박물관, 가정·보육·종교 교육 등을 배정하였다. 교육도 역시 조선총독부도서관신서부분류표가 京都大學附屬圖書館和漢書分類表보다 더 상세히 전개한 것으로 보인다.

경제에 대해 京都大學附屬圖書館和漢書分類表는 사회와 함께 第三門에 배정하였으며, 조선총독부도서관신서부분류표는 통계와 함께 第四門에 배정하였다. 京都大學附屬圖書館和漢書分類表에서 경제는 두 개의 강에 배정되어 있으며, 크게 재정총기와 경제총기로 대별하여, 재정에는 재정사, 예산, 국공유재산, 조세, 국공채, 상금이 있다. 경제에는 경제사, 화폐, 금융 및 공황, 신용조합, 보험 및 저금, 인구식민, 공업경제, 경제정책이 있다. 조선총독부도서관신서부분류표에서 경제는 일곱 개의 강에 배정되어 있으며, 크게 경제총기, 토지·자본·기업, 회사, 교통·운수, 상업, 식민·이민, 재정 등에 대해 각각 하나의 강을 배정하였다. 경제도 역시 조선총독부도서관신서부분류표가 京都大學附屬圖書館和漢書分類表보다 더 상세히 전개한 것으로 보인다.

京都大學附屬圖書館和漢書分類表에서 사회는 앞선 경제와 함께 第三門에 배정되어 하나의 강에만 전개되어 있다. 京都大學附屬圖書館和漢書分類表에서 사회는 목단계에서 사회총기, 사회문제, 사회주의, 가족제도, 노동, 직업, 민속, 사회정책 등으로 전개되어있다. 조선총독부도서관신서부분류표에서 사회는 교육과 함께 第二門의 여섯 개의 강에 전개되어 있다. 조선총독부도서관신서부분류표는 사회를 강단계에서 사회총기, 사회문제, 농촌문제, 사회개량 및 정책, 풍속, 가정으로 전개하였다. 사회에서도 역시 京都大學附屬圖書館和漢書分類表보다 조선총독부도서관신서부분류표가 더 비중을 두어 전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의학은 京都大學附屬圖書館和漢書分類表에서 第七門에 단독으로 배정되어 있으며, 조선총독부

도서관신서부분류표에서는 이학과 함께 역시 第七門에 배정되어 있다. 京都大學附屬圖書館和漢書分類表에서 의학은 의학총기, 치료법, 수의학 이 세 개의 강으로 전개된다. 의학총기에는 의학 관련 하위주제인 和漢古方, 생리, 병리, 해부 및 조직, 약리, 위생 등이 전개되어 있으며, 치료법에는 내과, 외과, 안과, 피부과, 부인과, 아동과 등 의학의 세부 과들이 이 전개되어 있다.

조선총독부도서관신서부분류표는 의학을 크게 의학총기, 치료학·생리요법, 방사선학, 위생으로 대별하여 네 개의 강에 배정하였다. 의학총기와 치료학·생리학의 목단계는 京都大學附屬圖書館和漢書分類表와 유사하였나, 京都大學附屬圖書館和漢書分類表에는 없던 방사선학이 전개되어 있다. 그리고 京都大學附屬圖書館和漢書分類表에서는 목단계에 있던 위생을 강단계에서 전개하였다. 의학에서 두 분류표는 京都大學附屬圖書館和漢書分類表가 하나의 류 전체를 의학에 배정하여 이학과 함께 하나의 류에 배정한 조선총독부도서관신서부분류표에 비해 더 비중 있게 다룬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강목단계에서 보면 거의 비슷하게 전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학은 京都大學附屬圖書館和漢書分類表에서 예술과 함께 第八門에 전개되어 있으며 조선총독부도서관신서부분류표에서는 군사와 함께 第八門에 전개되어 있다. 京都大學附屬圖書館和漢書分類表에서는 공예총기와 항공공학으로 대별하여 두 개의 강에 배정되어 있다. 목단계에서는 공학, 토목, 기계, 전기, 채광, 공업화학, 건축, 제도 등이 전개되어 있으며, 항공공학은 강단계에 전개되어 있으나 하위 목이 하나도 없다. 조선총독부도서관신서부분류표는 여섯 개의 강에 공학을 배정하였는데, 여기에는 공학총기, 토목공학, 건축학, 기계공학, 전기공학, 광산학이 있다. 그리고 각 강은 하위목을 두어 좀 더 세분되어 전개하였다. 공학에서도 역시 조선총독부도서관신서부분류표가 더 상세하게 전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예술은 京都大學附屬圖書館和漢書分類表에서 第八門에 공학과 함께 전개되어 있으며, 조선총독부도서관신서부분류표에서는 산업과 함께 第九門에 전개되어 있다. 京都大學附屬圖書館和漢書分類表는 미술총기, 금석, 음악, 스포츠·체조, 방기(方技)총기로 대별하여 다섯 개의 강에 배정하였다. 조선총독부도서관신서부분류표는 예술을 예술총기, 음악, 연극으로 대별하여 세 개의 강에 배정하였다. 예술에서 京都大學附屬圖書館和漢書分類表는 조선총독부도서관신서부분류표에는 없는 금석이나 방기 등을 전개하였으며, 조선총독부도서관신서부분류표는 京都大學附屬圖書館和漢書分類表에서는 음악의 목단계에 있던 연극을 강단계에서 배정하였다. 이와 같이 예술에서 두 분류표는 서로 비중을 둔 주제가 다름을 알 수 있으며, 京都大學附屬圖書館和漢書分類表이 좀 더 상세하게 전개한 것으로 보인다.

산업은 京都大學附屬圖書館和漢書分類表에서 第九門에 단독으로 배정되어 있으며, 조선총독부도서관신서부분류표에서는 예술과 함께 第九門에 배정되어 있다. 京都大學附屬圖書館和漢書分類表은 산업을 산업총기, 농업총기, 운송교통총기로 대별하여 세 개의 강에 전개하였다. 산업총기에는 목단계로 국가별 산업과 광업, 섬유, 제지 등이 전개되어 있으며, 농업총기에는 농업을 비롯해 원예, 임업, 축산, 수산업 등이 전개되어 있다. 운송교통총기에는 선박, 해운, 육운, 철도 등이 전

개되어 있다.

조선총독부도서관신서부분류표는 산업총기, 농업, 원예, 임학, 축산물, 공예, 기계공예, 화학공예로 대별하여 일곱 개의 강에 산업을 배정하였다. 산업총기의 목단계에는 산업사, 산업법, 조합, 산업정책 등이 있으며, 京都大學附屬圖書館和漢書分類表에서는 하나의 강인 농업총기에 배정한 원예, 임업, 축산, 수산 등이 각각 하나의 강을 차지하고 있고, 京都大學附屬圖書館和漢書分類表에서는 없었던 공업을 세 개의 강에 걸쳐 전개하였다. 산업에서도 역시 조선총독부도서관신서부분류표가 더 상세하고 광범위하게 전개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살펴본 京都大學附屬圖書館和漢書分類表와 조선총독부도서관신서부분류표의 비교 결과를 종합해 보면, 주류와 강목의 전개 순서와 정도가 다른 부분이 있으나 이 두 분류표의 분류항목은 유사한 점이 많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주류별 각 항목의 강목단계의 비교에서 나타난 것처럼 조선총독부도서관신서부분류표가 비교한 모든 주류에서 京都大學附屬圖書館和漢書分類表보다 좀 더 많은 항목을 열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두 분류표에 모두 열거된 항목이라도 京都大學附屬圖書館和漢書分類表에서는 목단계에 배정한 것을 조선총독부도서관신서부분류표는 강단계에 배정함으로써 좀 더 상세하게 전개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京都大學附屬圖書館和漢書分類表는 전개 항목의 수도 많지 않아 사용하지 않고 남겨놓은 기호가 많다는 것으로도 설명된다. 실제로 京都大學附屬圖書館和漢書分類表에서 목단계까지 전개한 분류항목의 수는 407개 인 반면, 조선총독부도서관신서부분류표는 조선문을 제외하고 633개로 1.5배에 이르고 있다. 이렇게 분류항목의 수에서의 차이가 분류표의 전개 정도에서의 차이로 나타났다.

3.2 철도도서관분류표와의 비교

조선총독부도서관분류표의 주류와 유사한 분류표로 철도도서관분류표를 들 수 있다. 철도도서관분류표는 그 편찬연도가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1920년에 주류별 대출도서수를 작성해 둔 통계가 있으며, 1925년에 발간된 장서분류목록에서 분류세목까지 확인할 수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14] 조선총독부도서관분류표보다는 먼저 편찬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철도도서관은 조선총독부도서관이 개관한 1925년에 조선국유철도가 만철의 위탁경영에서 해제되어 조선총독부로 경영권이 이관됨에 따라 조선총독부 철도국으로 그 관할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조선총독부도서관분류표를 편찬할 당시 동일한 관할권에 있었으며, 이미 분류표가 마련되어 있었던 철도도서관분류표를 참조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먼저 조선총독부도서관분류표와 1925년 철도도서관분류표의

14) 여지숙, 오동근, "일제강점기 철도도서관 분류표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5권, 제2호 (2004, 6), pp.98-100.

주류를 비교하면 <표 12>와 같다.

<표 12> 조선총독부도서관분류표와 철도도서관분류표의 주류비교

朝鮮總督府圖書館分類表		철도도서관분류표(1925)	
第一門	**哲學 宗敎**	0	總記
第二門	敎育 社會	1	**哲學, 宗敎**
第三門	法律 政治	2	敎育
第四門	經濟 統計	3	**文學, 語學**
第五門	**語學 文學**	4	歷史, 傳記, 地誌, 旅行
第六門	歷史 地理	5	法制, 政治, 法律, 法規, 經濟, 財政, 統計, 社會, 風俗, 習慣, 家政
第七門	**理學 醫學**	6	**理學, 醫學**
第八門	工學 軍事	7	工學, 航海, 兵事
第九門	産業 藝術	8	美術, 音樂, 諸禮, 娛樂, 運動, 競技, 武藝
第十門	全書 雜纂	9	産業, 交通, 通信
朝鮮門	朝鮮 附 滿洲蒙古西伯理亞		

조선총독부도서관분류표와 철도도서관분류표는 철학·종교, 어학·문학, 이학·의학의 세 개의 주류가 동일하며, 역사·지리와 공학·군사의 두 개 주류가 부분적으로 동일함을 알 수 있다. 철도도서관분류표가 화양서(和洋書) 공용분류표이므로, 이 분류표와 조선총독부도서관 신서부 및 양서부분류표에서 이 류들을 중심으로 비교분석 하여본다.

3.2.1 철학, 종교

철학과 종교는 철도도서관분류표에서 총류 다음으로 나오는 두 번째 주류로, 조선총독부도서관분류표 역시 이 두 주제를 한데 묶어 주류 중에서 가장 먼저 전개하였다. 먼저 이 두 주류의 철학, 종교 관련 항목을 비교하면 <표 13>과 같다.

<표 13> 철도도서관분류표와 조선총독부도서관신서/양서부분류표의 철학, 종교 비교

철도도서관분류표		조선총독부도서관신서부분류표		조선총독부도서관양서부분류표	
10	哲學	1-00	哲學	1-00	Philosophy
11	心理學	1-10	心理學	1-10	Logic
12	倫理學	1-20	倫理學	1-20	Psychology
13	論理學 及 美學			1-30	Ethic
14	東洋哲學	1-40	東洋哲學	1-40	Religion
15	宗敎	1-50	宗敎 總記	1-50	History of religion Mythology
16	神道	1-60	神道	1-60	Christianity Bible
17	佛敎	1-70	佛敎	1-70	Shintoism
18	基督敎	1-80	キリスト敎	1-80	Budhism Brahmanism
19	雜敎	1-90	道敎	1-90	Mohammedanism

철도도서관분류표와 조선총독부도서관신서부분류표는 <표 13>에 나타난 것처럼 철학과 종교에서 매우 유사한 전개를 보이고 있다. 철학에서는 철학-심리학-윤리학의 순으로 전개순서가 동일하며, 종교에서는 종교-신도-불교-기독교의 전개순서가 동일하다. 그러나 조선총독부양서부분류표의 경우 양서전용 분류표이므로 종교에서 기독교를 우선적으로 전개한 것이 다르다. 이 세 분류표는 철학, 종교의 전체 10개의 강 중에서 7개가 동일하여 상당히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2.2 어학, 문학

어학과 문학 역시 두 분류표에서 하나의 류에 묶어 전개한 것으로, 철도도서관분류표에서는 세 번째 주류로, 조선총독부도서관분류표에서는 다섯 번째 주류이다. 철도도서관분류표는 문학을 먼저 전개하고 이어 어학을 전개하고 있는 반면에, 조선총독부도서관분류표는 어학을 먼저 전개하고 문학을 전개하였다. 먼저 어학, 문학의 강단계를 비교하면 <표 14>와 같다.

<표 14> 철도도서관분류표와 조선총독부도서관신서/양서부분류표의 어학, 문학 비교

철도도서관분류표		조선총독부도서관신서부분류표		조선총독부도서관양서부분류표	
30	**文學**	5-00	**語學** 總記	5-00	**Philology**(General and misce.)
31	**國文學**	5-10	**國語**	5-10	Universal languages
32	**支那文學**	5-20	東洋諸國語	5-20	English
33	**外國文學**	5-30	文學 總記	5-30	German
34	**語學**	5-40	**國文學**	5-40	Other European languages
35	**國語**	5-50	室町時代小說	5-50	Asiatic languages
36	漢語	5-60	韻文學	5-60	**Literature**(General and misce.)
37	英語	5-70	**支那文學**	5-70	English literature
38	其他各國語	5-80	**外國文學**	5-80	German literature
39	演說, 論說, 速記	5-90	少年圖書 童謠 童畵 少年理科書	5-90	Other European literature

<표 14>에 나타난 것처럼 조선총독부도서관양서부분류표의 경우 양서만을 위한 분류표로 어학에서 외국어와 문학에서도 외국문학에 특히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철도도서관분류표와 조선총독부도서관신서부분류표는 어학의 전개순서를 어학-국어로 하였으며, 문학은 문학-국문학-支那文學-외국문학의 순서로 전개하였다. 특히 문학의 전개에서 두 분류표간에 유사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3.2.3 이학, 의학

이학과 의학은 철도도서관분류표에서 여섯 번째 주류이며, 조선총독부도서관분류표에서는 일곱 번째 주류이다. 먼저 이학과 의학의 강단계를 비교하면 <표 15>와 같다.

<표 15> 철도도서관분류표와 조선총독부도서관신서/양서부분류표의 이학, 의학 비교

철도도서관분류표		조선총독부도서관신서부분류표		조선총독부도서관양서부분류표	
60	**理學**	7-00	理學 總記	7-00	**Science**(General and misce.)
61	物理, 化學	7-10	和漢算法	7-10	Mathematics
62	天文, 地文學	7-20	理化學	7-20	Physics
63	**博物學**	7-30	化學	7-30	**Astronomy**
64	數學	7-40	**星學**	7-40	General biology
65	**醫學**	7-50	**博物學**	7-50	**Medicine**
66	基礎醫學	7-60	醫學 總記	7-60	Physiology Hygiene
67	臨床醫學	7-70	治療學 物理治療	7-70	Therapenties
68	法醫學	7-80	レントゲン學	7-80	Surgery Dentistry
69	獸醫學	7-90	衛生	7-90	Pharmacology

<표 15>에 나타난 것처럼 이학과 의학에서는 이학-천문-박물학-의학의 전개순서가 철도도서관분류표와 조선총독부도서관신서부분류표에서 모두 동일하다. 천문학을 성학(星學)이라 하여 사용한 용어는 다르지만, 이학과 관련한 분류항목은 비교적 유사하게 전개되었다. 그러나 의학의 전개는 일치하지 않았다.

3.2.4 기타

조선총독부도서관분류표에서 역사와 지리는 여섯 번째 주류로 전개되어 있으며, 철도도서관분류표에서는 전기, 여행과 함께 네 번째 주류에 전개되어 있다. 역사에 대해 조선총독부도서관신서부분류표는 역사-국사-풍속사-동양사-서양사의 순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양서부분류표는 역사-세계사-특정 국가 및 인물사의 순서로 전개하였다. 철도도서관분류표의 경우 역사-만국사-동양사-국사-서양사의 순으로 전개하였다. 이 세 분류표는 전개순서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조선총독부도서관신서부분류표와 철도도서관분류표가 좀 더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두 분류표의 차이는 조선총독부도서관신서부분류표에는 풍속사 항목이 있는 것이며, 철도도도서관분류표는 만국사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국사가 조선총독부도서관신서부분류표에는 역사 다음으로 전개된 반면, 철도도서관분류표에서는 동양사 다음으로 전개되어 있어 조선총독부도서관신서부분류표가 국사에 대해 좀 더 큰 비중을 둔 것으로 보인다.

지리에 대해 조선총독부도서관신서부분류표의 경우 분류항목을 지리로 하였으며, 철도도서관분류표의 경우 지지로 하였다. 조선총독부도서관신서부분류표 지리-본방지리-아세아지리의 순서로 전개하였으며, 조선총독부도서관양서부분류표는 지리-세계지리로 전개하였다. 철도도서관분류표는 지지, 여행-만국지지-본방지지-외국지지의 순서로 전개하였다. 세 분류표에서 유사한 분류항목들이 있으나, 전개순서가 다르며 세목의 전개도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역사 및 지리에서는 역사에서만 조선총독부도서관신서부분류표가 철도도서관분류표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총독부도서관분류표에서 공학과 군사는 여덟 번째 주류이며, 철도도서관의 경우 일곱 번째 주류로 공학, 병사이다. 공학에 대해 조선총독부도서관신서부분류표는 공학-토목공학-건축학-기계공학-전기공학-광산학의 순서로 전개하였으며, 조선총독부도서관양서부분류표는 공학-토목공학, 측량-건축술, 건축-기계공학, 항공학-전기공학-광산학의 순서로 전개하여 두 분류표가 매우 유사하게 전개하였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철도도서관분류표는 공학-토목공학-기계공학-전기공학-건축-광업-조선학-항해로 전개하여 조선총독부도서관의 두 분류표와 전개순서가 다르며, 두 분류표에는 없는 조선학과 항해를 배정하여 전개하였다. 공학에서 조선총독부도서관의 두 분류표는 철도도서관분류표와 부분적으로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사에 대해 조선총독부도서관신서부분류표는 하나의 강만을 배정하였으며, 양서부분류표는 군대-군사학-해군학-전쟁사의 순서로 네 개의 강을 배정하였다. 철도도서관분류표는 하나의 강

을 배정하여 조선총독부도서관신서부분류표와 동일하며, 목의 전개에서 전개순서는 다르나 유사한 분류항목들이 있다. 즉 군사, 군사교육, 戰史, 육군, 해군 등의 항목이 동일하나 이들의 전개순서는 다르다. 군사에서는 조선총독부도서관신서부분류표와 철도도서관분류표가 부분적으로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살펴본 조선총독부도서관신서부분류표 및 양서부분류표와 철도도서관분류표를 비교해 본 결과, 주류에서 동일한 류인 철학·종교, 어학·문학, 이학·의학은 그 이하 분류항목에서도 매우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류에서 일부 유사한 류인 역사·지리, 공학·군사는 강목단계에서도 일부 유사하거나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철학·종교는 세 분류표 모두 상당히 일치한 부분들이 많았으며, 어학·문학과 이학·의학은 조선총독부도서관신서부분류표와 철도도서관분류표가 더 일치하는 부분들이 많았다. 그리고 역사와 지리에서 조선총독부도서관신서부분류표와 철도도서관분류표가 부분적으로 유사한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3 和洋圖書共用十進分類表案과의 비교

和洋圖書共用十進分類表案[15]는 森淸가 1928년에 발행한 청년도서관원연맹기관지인 『書硏究』에 게재한 것으로, 이를 증보·수정하여 일본십진분류법(NDC) 초판을 만들었다.[16] 森淸는 이 안(案)이 듀이십진분류법(DDC)의 체제를 따랐으며, 일본의 실정에 맞지 않는 종교, 언어, 문학 및 역사 부문이 수정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이 분류표의 편찬 목적이 일본발행도서와 외국발행도서에 공통으로 적용하여 사용하는데 있음을 밝히고 있다.[17] 和洋圖書共用十進分類表案은 조선총독부도서관분류표의 편찬 연도보다 늦으며, 조선총독부도서관분류표는 편찬 연도가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두 분류표 간에 어느 분류표가 어느 분류표에 영향을 주었는지, 또는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힐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두 분류표 간에 유사한 분류항목이 다수 있어 이를 비교하여 그 관계를 밝혀 본다.

3.3.1 주류의 비교

두 분류표 모두 십진분류법이나, 기호법에서 앞서 언급한 조선총독부도서관분류표와는 달리 和洋圖書共用十進分類表案는 DDC와 동일하게 아라비아숫자만을 사용한 순수기호법을 채택하였다. 먼저 이 두 분류표의 주류를 비교해 보면 <표 16>과 같다.

---

15) 森淸. "和漢圖書共用十進分類表案," 書硏究, 第1卷, 第3號(1928.4), pp.17-57.
16) 森淸 編, 日本十進分類法 : 和漢洋書共用分類表 及 索引, 改正增補第4版(東京 : 間宮商店, 昭和14年[1939]), p.9.
17) 森淸, "和漢圖書共用十進分類表案," *op. cit.* p.20.

<표 16> 和洋圖書共用十進分類表案과 조선총독부도서관분류표의 주류비교

和洋圖書共用十進分類表案			朝鮮總督府圖書館分類表	
000	總記	General works	第一門	**哲學 宗敎**
100	**哲學 及 宗敎**(精神科學)	Spiritual sciences	第二門	敎育 社會
200	歷史科學	Historical sciences	第三門	法律 政治
300	社會科學	Social sciences	第四門	經濟 統計
400	自然科學	Natural sciences	第五門	語學 文學
500	工藝學, 有用技術	Technology, Useful arts	第六門	歷史 地理
600	産業	Industrial arts	第七門	理學 醫學
700	美術	Fine arts	第八門	**工學** 軍事
800	文學	Literature	第九門	**産業** 藝術
900	語學	Linguistics	第十門	全書 雜纂
			朝鮮門	朝鮮 附 滿洲蒙古西伯理亞

<표 16>에 나타난 것처럼, 이 두 분류표에서 주류는 철학 및 종교가 동일하며, 부분적으로 공학과 산업에서 유사하다. 앞서 언급한 일본 실정과 맞지 않아 수정한 종교, 언어, 문학 및 역사 부문 중에서, 언어와 문학, 역사는 DDC가 서양 위주인 점을 보완하여 수정하였다. 즉 200 역사에서도 일본역사를 210, 아시아역사를 220에 배정하였으며, 어학에서도 역시 일본어와 지나어 및 아시아 제국어를 910과 920에 배정하였다. 문학에서도 일본문학과 지나 및 아시아문학을 을 810과 820에 배정하였다. 따라서 이 세 류는 조선총독부도서관분류표와 관계가 없고, 단순히 DDC의 전개에 자국우위(local emphasis)를 적용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조선총독부도서관분류표와 연관지어 살펴보아야 할 주류로는 종교와 공학, 산업이 있다. 和洋圖書共用十進分類表案가 일본에서 출판된 책과 서양에서 출판된 책에 공동으로 적용되므로, 和洋圖書共用十進分類表案과 조선총독부도서관신서부분류표와 더불어 양서부분류표도 비교해 본다.

3.3.2 종교

철학과 종교는 和洋圖書共用十進分類表案에서는 총기류에 이어 두 번째 류이며, 조선총독부도서관분류표에서는 첫 번째 문이다. 먼저 세 분류표의 강단계를 비교하면 <표 17>과 같다.

<표 17> 和洋圖書共用十進分類表案과 조선총독부도서관신서/양서부분류표의 종교 비교

和洋圖書共用十進分類表案		조선총독부도서관신서부분류표		조선총독부도서관양서부분류표	
100	宗敎 及 哲學	1-00	哲學	1-00	Philosophy
110	哲學	1-10	心理學	1-10	Logic
120	東洋哲學	1-20	倫理學	1-20	Psychology
130	西洋哲學			1-30	Ethic
140	心理學	1-40	東洋哲學	1-40	Religion
150	倫理學	1-50	宗敎 總記	1-50	History of religion Mythology
160	宗敎, 神學	1-60	**神道**	1-60	**Christianity Bible**
170	**神道**	1-70	**佛敎**	1-70	**Shintoism**
180	**佛敎**	1-80	**キリスト敎**	1-80	**Budhism Brahmanism**
190	**基督敎**	1-90	道敎	1-90	Mohammedanism

<표 17>에 나타난 것처럼 세 분류표는 종교에서 특히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 앞서 언급하였지만, 종교는 일본 실정에 맞추어 수정한 부문이다. 和洋圖書共用十進分類表案과 조선총독부도서관신서부분류표에서 신도-불교-기독교의 순서가 일치한다. 이것은 NDC에도 그대로 연결된다. 조선총독부도서관양서부분류표에서는 기독교-신도-불교의 순서이다. 이것은 양서전용분류표라는 점에서 기독교를 특별히 우선시한 것으로 보인다.

3.3.3 공학

공학은 和洋圖書共用十進分類表案에서는 공예학(工藝學)이라 하여 다섯 번째 주류이며, 조선총독부도서관분류표에서는 여덟 번째 문이다. 먼저 이 세분류표에서 공학의 강단계를 비교하면 <표 18>과 같다.

<표 18> 和洋圖書共用十進分類表案과 조선총독부도서관신서/양서부분류표의 공학 비교

和洋圖書共用十進分類表案		조선총독부도서관신서 부분류표		조선총독부도서관양서부분류표	
500	工藝學, 有用技術	8-00	工學	8-00	**Engineering**
510	**土木工學**			8-10	**Civil engineering Surveying**
520	**建築學**	8-20	**土木工學**	8-20	**Architecture and building**
530	**機械工學**	8-30	**建築** 船車	8-30	**Mechanical engineering Aeronautics**
540	**電氣工學** 及 工業	8-40	**機械工學**	8-40	**Electrical engineering**
550	**鑛山學** 及 鑛業	8-50	**電氣工學**	8-50	**Mining engineering**
560	操船學 及 海事	8-60	**鑛山學**	8-60	Army
570	應用化學 及 工業	8-70	軍事	8-70	Military science
580	工業			8-80	Naval science
590	家政學			8-90	History of wars

<표 18>에 나타난 것처럼, 공학에서 和洋圖書共用十進分類表案와 조선총독부도서관의 두분류표간에 공통점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이 세 분류표는 공학에서 다섯 개의 강이 일치하는데, 그 순서는 공학-토목-건축-기계공학-전기공학-광산학이다. 즉 공학과 관련된 모든 강단계가 일치하는 것이다. 이러한 和洋圖書共用十進分類表案의 공학의 전개순서는 NDC에 그대로 연결된다.

3.3.4 산업

산업은 和洋圖書共用十進分類表案에서 여섯 번째 주류이며, 조선총독부도서관분류표에서는 아홉 번째 문이다. 먼저 산업의 강단계를 비교해 보면 <표 19>와 같다.

<표 19> 和洋圖書共用十進分類表案과 조선총독부도서관신서/양서부분류표의 산업 비교

和洋圖書共用十進分類表案		조선총독부도서관신서 부분류표		조선총독부도서관양서부분류표	
600	産業	9-00	産業	9-00	Industries
610	農業	9-10	農業	9-10	Agriculture
620	園藝學	9-20	園藝	9-20	Horticulture Landscape gardening
630	林業	9-30	畜産物	9-30	Veterinary science
640	畜産學	9-40	工藝	9-40	Fisheries
650	蠶業	9-50	機械工藝	9-50	Technology
660	水産業	9-60	化學工藝	9-60	Arts
670	商業	9-70	藝術	9-70	Fine arts
680	交通	9-80	音樂	9-80	Music
690	通信	9-90	演劇	9-90	Amusement Indoor games

<표 19>에 나타난 것처럼, 산업에서 이 세 분류표는 산업-농업-원예의 순서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 게다가 和洋圖書共用十進分類表案와 조선총독부도서관양서부분류표는 수산업을 강단계에 두고 있다. 조선총독부도서관신서부분류표에서는 수산을 9-30 아래의 목으로 두고 있다. 이 순서는 NDC에도 그대로 연결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和洋圖書共用十進分類表案와 조선총독부도서관분류표를 비교해본 결과 두 분류표 사이에는 특정 류에서 특히 유사한 점이 많이 발견된다. 특히 앞서 살펴본 공학의 경우에는 공학관련 모든 류의 전개순서가 동일함을 알 수 있었고, 종교에서도 각 종교의 전개순서와 동일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산업에서도 역시 그러하였다. 이러한 순서는 NDC에도 그대로 연결되었다.

조선총독부도서관분류표의 편찬연도가 정확하지 않은 관계로 그 영향관계를 명확히 밝힐 수는 없으나, 조선총독부도서관분류표의 편찬연도가 앞서 추측한 대로 1924년일 경우, 이 분류표가 和洋圖書共用十進分類表案은 물론 차후 NDC에도 영향을 미쳤으리라 사료된다.

4. 결 론

조선총독부도서관은 전 조선의 총중앙도서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졌으며[18] 그 시기 역시 일제강점기 당시로 한정되어 있으나, 국립중앙도서관의 전신이다. 그리고 본고는 이러한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의 도서관정책을 주도하던 관립도서관에서 사용한 분류표라는 점에서 조선총독부도서관분류표을 분석해 보았다. 지금까지 살펴본 조선총독부도서관분류표와 관련된 내용들을 종합하여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조선총독부도서관분류표는 신서, 고서, 양서를 위한 분류표를 별도로 마련하여 사용하였다. 이 분류표의 편찬연도와 편찬자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추측하건데 최소한 조선총독부도서관이 개관할 당시부터 신서부분류표는 이미 마련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② 조선총독부도서관분류표가 京都大學附屬圖書館分類表를 참조하였을 것이라는 기존 설에 따라 이 두 분류표를 비교분석한 결과, 이 두 분류표는 주류에서 법률·정치, 어학·문학, 역사·지리, 전서·잡찬에서 동일하였다. 또한 이들의 강목단계를 비교한 결과 강목의 전개에서는 차이가 있었으며, 조선총독부도서관분류표가 京都大學附屬圖書館分類表보다 좀 더 상세히 전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류에서 동일한 류들이 다수 있으며, 분류기호의 형식 등이 비슷한 점으로 미루어보아 조선총독부도서관분류표를 편찬할 당시 京都大學附屬圖書館分類表를 두루 참조한 것으로 보인다.

③ 조선총독부도서관신서부분류표는 조선총독부도서관이 개관하던 해인 1925년에 조선총독부 철도국 소속이 된 철도도서관분류표와 비교해본 결과, 철학·종교 그리고 어학·문학, 이학·의학에서 철도도서관분류표와 매우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당시 조선총독부도서관신서부분류표는 철도도서관분류표를 부분적으로 참조한 것으로 보인다.

④ 또한 NDC 초판이 나오기 전 그 안으로 제시된 和漢圖書共用十進分類表案과 비교해본 결과, 주류에서 종교와 공학, 산업에서 유사하였다. 이들 류의 주류이하 분류항목도 역시 동일한 점이 다수 발견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조선총독부도서관분류표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사료된다.

비록 일제에 의해 세워진 도서관이지만, 조선총독부도서관은 일제강점기 동안 우리나라 도서관을 대표하는 근대적 의미의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한 최초의 도서관 이였다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그 도서관에서 사용한 분류표 역시 우리나라 문헌분류사에서 그만큼의 의의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

18) "朝鮮總督府圖書館略史," *op. cit.*

참고문헌

국립도서관. 장서분류목록 : 해방이전일서부. 서울 : 국립도서관, 檀紀4294[1961].

국립도서관. 고서부분류목록 : 首卷. 서울 : 同도서관, 檀紀4289[1956].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사. 서울 : 국립중앙도서관, 1973.

김남석. 일제하 공공도서관의 사회교육활동. 대구 : 계명대출판부, 1991.

김세익. 도서, 인쇄, 도서관사. 서울 : 종로서적, 1984.

김진수. 박봉석의 「조선십진분류법」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사서교육전공, 1984.

박희영. "국립중앙도서관사." 도서관, 제26권, 제2호(1971. 2). pp.6-7.

서울特別市史編纂委員會 編. 서울六百年史, 第四卷. 서울 : 1981.

여지숙, 오동근. "일제강점기 철도도서관 분류표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5권, 제2호(2004,6), pp.95-114.

오동근. 도서관인 박봉석의 생애와 사상. 대구 : 태일사, 2000.

원종린. 박봉석의 도서관사상 연구 : 그의 업적에 나타난 인간상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도서관학과, 1980.

정필모. 문헌분류론. 서울 : 구미무역, 1991.

朝鮮總督府圖書館. 新書部分類票. 發行地不明 : 昭和4年 印刷.

朝鮮總督府圖書館. 古書及洋書部分類票. 發行地不明 : 昭和6年 印刷.

朝鮮總督府圖書館. 新書部分類目錄 : 上卷. 京城 : 同圖書館, 昭和12年[1937].

朝鮮總督府圖書館. 新書部分類目錄 : 中卷. 京城 : 同圖書館, 昭和12年[1937].

朝鮮總督府圖書館. 新書部分類目錄 : 下卷. 京城 : 同圖書館, 昭和13年[1938].

_____. "朝鮮總督府圖書館略史." 文獻報國, 第1卷, 第1號(1935. 10).

京都大學附屬圖書館 編. 京都大學附屬圖書館六十年史. 京都 : 昭和26年[1961].

滿鐵京城圖書館 編. 滿鐵京城圖書館圖書目錄. 京城 : 大正14年[1925].

森淸. "和漢圖書共用十進分類表案." 書硏究, 1卷, 3號(1928. 4), pp.17-57.

森淸 編. 日本十進分類法 : 和漢洋書共用分類表 及 索引, 改正增補第4版. 東京 : 間宮商店, 昭和14年[1939].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 <http://www.nl.go.kr> [인용 2004. 5. 20.]